

2016. 6. 13.(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6월 1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724-0138
전시과장	박상빈	724-0145
담당자	나신균	724-0150
관련홈페이지 (메뉴)	www.museum.seoul.kr (상단/전시-작은전시)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쪽

“6월 호국보훈의 달” 을 맞아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展 개최

Seoul History Museum holds a photo exhibition <The Korean War and Seoul>
through the eyes of AP correspondents

- 6.25 당시 서울 격변의 현장을 AP통신 특파원이 기록한 사진 통해 집중 조명
- 작가 김한용의 사진 자료와 전쟁 피해 현황을 표시한 전재표시도(戰災表示圖) 등 전시
- 7.1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

- 서울역사박물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展을 오는 7월 17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전시는 AP통신 특파원이 기록한 사진들을 통해 당시 격변의 현장 서울의 모습과 서울 사람들의 삶을 함축하여 보여준다.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의 6.25전쟁은 민족의 비극으로, 당시 서울은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 및 문화재 등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 6.25전쟁으로 인한 치열한 시가전투, 폐허로 변해버린 서울 도심,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시민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시민들의 재건 의지까지 사진 속에 담겨있다. 이번 전시작품을 포함한 AP통신의 사진 자료는 2012년 「격동의 시대 서울」 책으로 발간한 바 있다.

- 사진작가 김한용 선생은 보도와 예술, 광고, 인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사진연구소를 운영하며 서울의 변화상을 파노라마 사진으로 다양하게 남겼다.
- 이번 전시에는 선생이 촬영한 사진 중 6.25와 관련해서 종전 직후 명동성당과 마포, 영등포 일대의 서울 모습이 담겨져 있다. 사진 속의 서울은 요소 요소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 당시 포격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 최근 서울역사박물관 신수 자료인 「서울특별시 전재표시도」(1952년경)는 6.25 당시 시가전과 폭격으로 인한 서울 시내의 피해 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 지도에는 6.25~9.28 수복때까지 시기 피해지역은 주황색으로, 1.4 후퇴 이후 시기는 청색으로 표시하였다. 6.25 시기 주요 파괴지역은 경복궁과 세종로, 종로, 남대문로, 용산 등이며 1.4 후퇴 이후 파괴지역은 경복궁 인근지역과 의주로, 충무로, 용산, 마포 등이다. 지도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전시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민들에게 6.25의 아픔과 시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seou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24-0274)

붙임 1. 주요전시자료 1부. 끝.

첨부 1 : 주요전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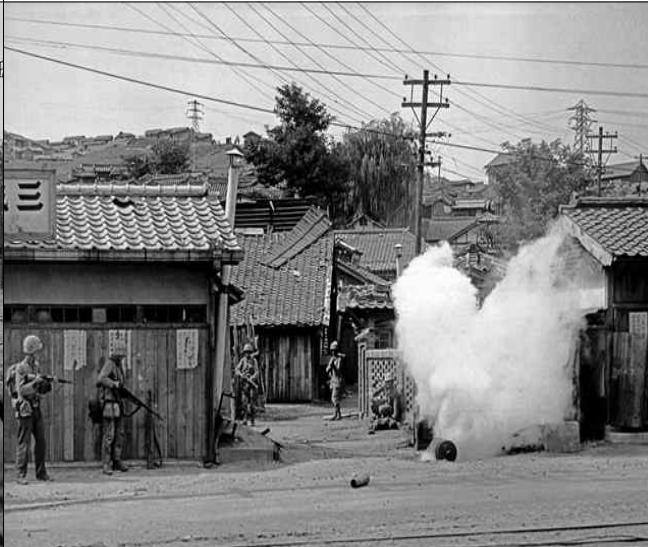
① 시가전으로 폐허가 된 서울 도심



② 부서진 건물과 검은 연가 차솟고 있는 아현동 인근



③ 서울 탈환을 위한 치열한 전투



④ 서울 탈환을 위한 시가전



⑤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이 걸린 건물 앞에서 시가전을 벌이는 연합군



⑥ 부상자를 옮기고 있는 군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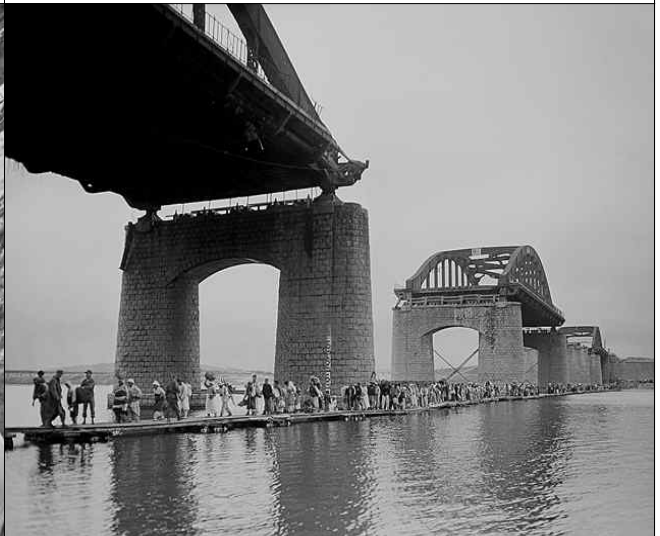
⑦ 치열한 전투 후 총과 철모를 벗고 중앙청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미군



⑧ 중앙청에서 유엔기를 게양하고 있는 군인들



⑨ 서울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



⑩ 중공군의 공격을 피해 한강부교를 건너지는 피난 행렬



⑪ 전쟁중의 여심



⑫ 철모를 쓴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다", "철모를 써라"



⑬ 지게에 아이와 짐을 지고 태평로를 건너는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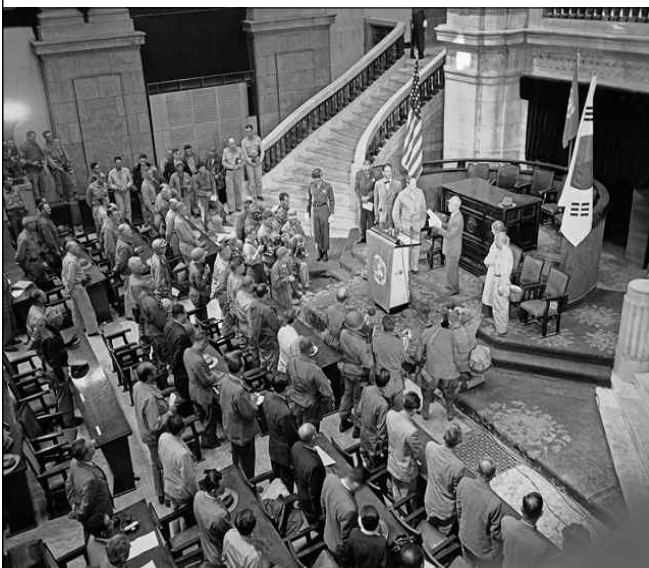
⑭ 포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아이들과 엄마



⑮ 풍선껌을 부는 미군과 소년



⑯ 폐허로 변한 명동, 충무로 일대



⑰ 중앙청에서 열린 서울수복기념식



⑱ 중앙청 앞 휴전반대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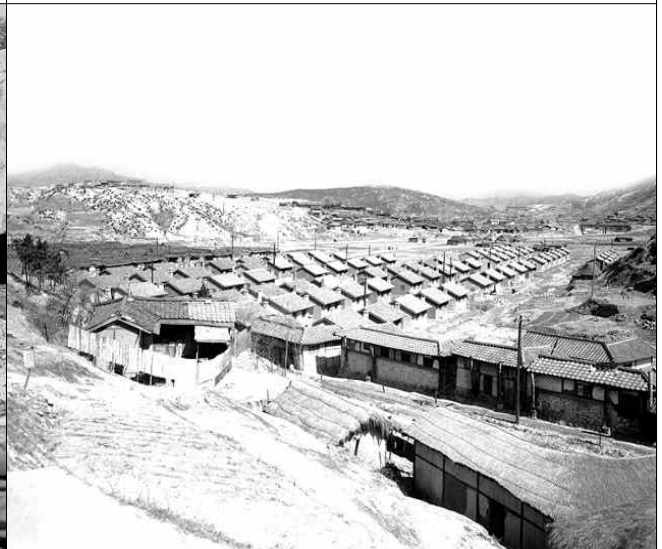
①9 휴전반대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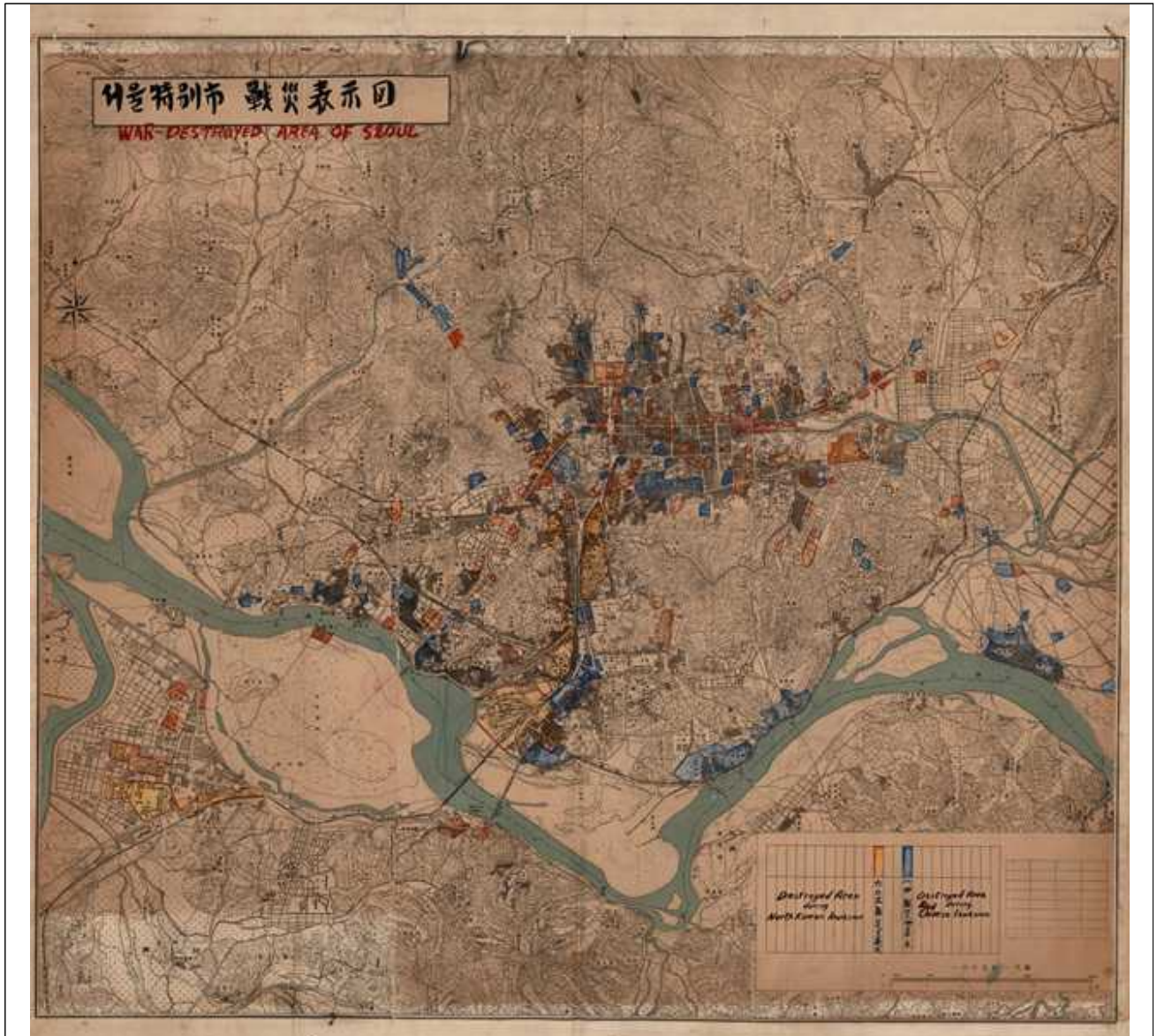
②0 전재복구에 참여한 시민



②1 부서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재건의 의지를 다지는 군인과 시민들



②2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지원으로 건설된 성북동의 공공주택단지



② 서울특별시 전재표시도(戰災表示圖)